www.GungPlant.co.kr
시원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진료하는
궁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조계사 앞 사거리,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앞

佛敎新聞

전통 한방향의 본가
취운향당 www.cwh.co.kr 취운향당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6년 10월 20일 (2012년 / 단기 4345년 음력 9월6일) i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857호 토

이기흥 제25대 중앙신도회장 취임

불자인재 양성해 사회공헌 '앞장'

불교 중심되도록 매진할 것 '다짐'

지난 13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사부대중 2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중앙신도회 제25대 이기흥 회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의정 전 중앙신도회장, 총무원장 자승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한국불교 신도단체를 대표하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5대 회장에 이기흥 회장이 취임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지난 1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원로의원 월탄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김희옥 동국대 총장, 김장실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4대·25대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법회는 우방우 봉행위원장의 봉행사, 진제 종정예하 법문, 치사 순으로 진행됐다. 진제 종정예하는 원로의원 월탄스님이 대독한 법문을 통해 "보승거사의 뜻에 따라 전국의 불자가 일심으로 하나 돼 임기 내 한국불교가 더욱 중흥하고, 선풍이 널리 전직되는 무량공덕을 얻기 바란다"며 법어를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김의정 회장은 선대의 신심에 본인의 원력을 더해 신도회관 건립불사를 원만히 성취했으며,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는 일에도 앞장서 왔다"며 지난 7년간의 활동을 치하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어 "신임 이기흥 회장은 많은 체육인 불자들을 발굴해 체육인불자연합회를 창립했으며, 지난 8월에는 런던올림픽 선수단장으로 우리 국민에게 환희와 감동을 전해 주었다"고 소개했다. 이와함께 총무원장 스님은 "종단은 자성과 쇄신결사를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며, 사부대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종단을 위해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쇄신결사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런 제도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 중앙신도회의 골간인 교구신도회와 사찰 신도회, 신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교원장 지원스님, 김희옥 동국대 총장의 축사에 이어 김의정 회장이 이임사를 통해 지난 7년간의 활동을 회고했다.

김의정 회장은 "신도회관 건립을 위해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특히 감사드린다"며 "이제 평범한 불자로 돌아가 한국다도 종가를 이끄는 차인으로, 한권의 경전을 읽으며 무상의 도리를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25대 신도회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 보고에 이어 신임 이기흥 회장의 취임사가 이어졌다. 이기흥 회장은 "중앙신도회는 불교인재를 발굴해 육성하고, 교구신도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중앙신도회가 종단과 불교의 중심이 되도록 매진하겠다. 경륜과 지혜를 가진 사부대중이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신도회는 법회에 앞서 조계사 경내에서 자비의 쌀 나누기와 교정시설 도서보내기 운동을 갖고, 이날 법회에서 종로구청과 교정인불자회에게 모연된 물품을 전달했다. 안직수 기자 jsahn@ibulgyo.com

불산가스 피해지역 주민 총체적 대책 마련 '촉구'

조계종 환경위 성명 발표

최근 구미지역에서 맹독성 가스 불산이 유출돼 주민과 노동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스님)가 정부에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구미시와 정부의 안이한 조처와 늑장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환경위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피해는 유독가스에 대한 관리부실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대형 인재"라며 "정부는 초기 대응 실패와 이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가 난지 12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며 "피해주민과 노동자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마을을 포함한 피해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오염된 물과 공기, 토양으로 인한 2차, 3차 피해와 환경재앙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양과 지하수, 낙동강 수질에 대한 안정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고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총체적 대책 없이 또 다시 수습에만 급급하다면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한글천수경 의견수렴 공청회

의례위 29일 개최

한글천수경 공포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조계종 의례위원회(의원장 인묵스님)은 오는 29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글 의례문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의례위원장 인묵스님의 경과보고로 시작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스님이 '한글천수경의 이론적 부분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제하며 불찬범음연구소장 혜일스님이 '한글천수경의 음악적 부분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원혜스님,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원명스님, 호국봉암사 주지 함현준 법사, 임희웅 포교사단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의례위원회는 "의례의식 한글화는 시대적 요청이며 현대 포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한글천수경 제정을 위해 개최하는 공청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지면안내

신흥사 춘천3135 개국 10주년
'속초중계소 개소기념 음악회' 5면
호남불교계는 지금 축제 중 6면
'성철스님과 나'
법연을 말하다
동화사 지환스님 11면

社告

새로운 도약 2013불교박람회

불교박람회 2013 BUDDHISM EXPO

불교신문은 불교문화콘텐츠의 외연을 확장하고 불교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장으로 '2013불교박람회'를 개최합니다. 2013불교박람회는 불교계 사부대중과 불교산업·문화예술이 만나는 장으로 불교산업과 한국불교문화발전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통문화산업과 불교문화·산업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오니 사부대중과 관련 업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업체모집

- **기 간** : 2013년 3월 7일(木) ~ 3월 10일(日) 4일간
- **장 소** :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학여울역)
- **참가대상** : 불교 및 전통문화 산업체, 불교 및 전통문화 예술인, 종단 및 주요사찰, 불교관련업체(단체) 및 기관, 불교문화예술인, 불교 NGO, 사회적기업 등 불교관련 산업체
- **문 의** : ☎ 02·2231·2013(불교박람회사무국)

※ 자세한 내용은 2013불교박람회 홈페이지(www.bexpo.kr)를 참조바랍니다.

- **주 최** : 불교신문사, 불광출판사
- **주 관** : 2013불교박람회 조직위원회, ㈜마인드디자인
- **후 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생명나눔 10월 환우 사지마비 유동욱 씨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스님)는 10월 치료비 지원 선정환자로 사지마비로 투병중인 유동욱(31) 씨〈사진〉를 선정했다.

"삶이 힘들 때마다 중심을 잡아준 부처님께 귀의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유동욱 씨는 지난 2010년 5월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안동에 있는 사찰로 가던 중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버스 충돌로 유리창 밖으로 떨어져 뇌출혈을 입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 진단을 받게 됐다. 더욱이 고속버스 사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험적용을 못 받고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매월 들어가는 치료비만 175만 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 씨의 부모님이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 생명나눔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템플스테이 10주년 2002 - 2012

2013년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공고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불교문화의 대중화와 한국문화자원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불교와 사찰문화를 알릴 수 있는 사업역량을 갖춘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템플스테이 사업 운영 사찰의 기본 요건(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규정 제4조)
가.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특화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찰
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여자 20인 이상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프로그램 진행공간, 숙소)를 갖추고 사용에 불편이 없는 편의시설(화장실, 세면장, 비품)을 갖춘 사찰
다. 프로그램 운영자(지도법사, 실무자)를 2인 이상 확보한 사찰
라.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찰로 전통 가람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 심사절차

1차 서류 심사	2차 운영계획 발표	3차 현장실사	사찰선정 및 평가
~11월 1주	11월 2주	11월 3주	2013년 1월 ~ 11월
서류접수 및 심사	통합정보센터3층/ 서류합격사찰에 한함	각 사찰 현장 검증/ 운영계획 발표 합격사찰에 한함	12월 평가시행/ 최종합격한 사찰

● 제출서류 안내
• 제출기간: 2012년 10월 17일(수) ~ 2012년 11월 5일(월) 18:00까지
• 제출서류
1) 접수공문
2)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buddhism.or.kr, www.templestay.com)
– 신청서(서식), 고유번호증, 지적도, 가람배치도, 이력서(서식), 조직도, 사진, 홍보물
– 신청서 내 첨부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견지동)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4층
• 서류심사 결과발표: 개별연락(전화, 이메일, 팩스)
• 문의: 템플스테이1팀 박종선 주임, 02-2031-2025, ts2002@templestay.com

불기2556(2012)년 10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